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6월 1일(수), 오후 2~4시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왜총의 조사와 의미

이 기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I . 들어가며

1907년 처음 발견된 김해 패총은 한국고고학 뿐 아니라 일본고고학에도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다른 유적들과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으며, 그 중 1920년도의 조사는 당시로서는 예외적일 정도의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또한 발굴 조사의 결과가 금석병용기, 김해식토기, 원삼국시대 논쟁 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구주지역의 옹관 편년에 있어 김해식 옹관이라는 형식이 설정되는 등 일본고고학에도 일정의 영향을 주었다.

김해패총은 해방 이전까지 총 11회에 걸친 조사 자료가 남겨져 있다. 물론 11회가 모두 굴착조사는 아니며, 이 중 굴착조사 또는 적어도 유물 수습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은 8회로, 그 외 3회는 답사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8회에 걸친 발굴 조사 중,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의 1907년 이마니리 류(今西龍)의 조사와 우연히 옹관이 발견되어 수습 조사로 이어진 1934년의 카야모토 토진(榎本杜人) 조사를 제외한다면, 다른 6회의 조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사전에 계획된 조사였다.

왜 김해패총은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으며, 고적 조사의 과정에서 답사 대상이 되었을까.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의 많은 부분이 한반도의 선사·고대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선사·고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석기시대 조사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으며, 그 전형적인 사례가 김해패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34년 榎本杜人の 조사로 옹관이 발견된 이후, 김해패총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김해식토기, 김해기, 김해문화, 원삼국시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지금의 한국고고학에서는 김해패총이 원삼국시대 논쟁의 초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일제강점기 김해패총의 조사는 석기시대의 확인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Ⅱ. 석기시대 조사와 김해패총의 발견 - 경술국치 이전

잘 알려져 있듯이 김해패총은 今西龍에 의해 1907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1906년 今西龍은 처음으로 한국 조사여행을 오게 된다. 그는 조사 여행 전까지 한반도에 패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지만, 한반도에 패총이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주 남산성 내에서 소형의 반마제석부를 채집하였다. 이렇게 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하고 패총의 존재를 확신한 그는 패총을 찾기 위해 울산과 영일만까지 갔으나 패총유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가 패총을 발견한 것은 다음 해인 1907년으로, 다시 대학의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왔을 때 김해의 봉황대라는 구릉에서 패총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김해패총에서 석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며, 토기를 근거로 김해패총은 韓種族이 만든 삼한시대의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今西龍이 김해패총을 발견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석기시대의 유적인 패총을 찾고자 하는 의도적인 조사의 결과였다. 당시 일본고고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 한반도에 석기시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조사의 배경에는 패총=석기시대의 유적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석기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였다. 그가 김해패총의 조사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 이 패총은 어떠한 종족이 남겼을까? 2) 그 종족과 일본 석기시대 주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의 문제였다.

그는 왜 한반도에서 석기시대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는가? 그리고 어째서 그 대상으로 패총에 주목하였는가? 今西龍의 김해패총 발견에는 학문적인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일본 고고학의 연구 경향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니,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일본 인종·민족논쟁’과 메이지시대부터 이어져 온

석기시대 패총 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일본의 석기시대 유적, 지금의 일본고고학에서 본다면 죠평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패총이었다. 당시 고고학의 학문적 수준으로 본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주거지나 분묘 등의 매장 유구보다 발견이 쉬운 패총이 일반적인 석기시대 유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인 인종·민족논쟁과 풍부한 패총 조사의 경험이 바로 今西龍이 한반도에서 패총을 찾고자 하는 조사 계획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今西龍이 한반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1900년대 초반의 일본인 인종·민족논쟁은 아이누설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누설에는 또한 두 가지의 논지가 있었으니 1) 일본 석기시대인은 아이누였다는 것 2) 그리고 아이누족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今西龍이 한반도의 석기시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일본 석기시대의 유물과 동일한 유물이 존재하고 있는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해패총의 조사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달랐다. 김해패총 출토 토기는 ‘일본석기시대의 패총 유물과 다르며, 토기 등 역시 일본 패총의 것보다 진보된 것으로, 만약 아이누가 한반도에서 왔다고 한다면 일본 석기시대인이 아이누가 아니라는 뜻이 되고, 일본 석기시대인이 아이누족이라고 한다면 아이누가 한반도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즉 일본 인종 기원론에서 아이누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양론이 병립할 수 없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김해패총의 조사 결과가 당시 일본에서 논의되던 석기시대인 논쟁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못하였던 것이다.

김해패총의 조사 결과가 패총=석기시대라는 今西龍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今西龍의 조사목적이다. 물론 한반도에 석기시대가 존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도 조사 목적 중의 하나였을 것이나, 보다 궁극적인

것은 일본의 석기시대 그리고 인종·민족논쟁에서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한반도의 역사 규명보다는 일본의 역사를 규명하는 보조적인 자료 확보로서의 한반도 고적조사의 경향을 이때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이다.

Ⅲ. 鳥居龍藏의 조사 - 1910년대

1907년 발견된 김해패총의 후속 조사는 경술국치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실시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10년대 김해패총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회(1914, 1918년),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에 의해 1회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鳥居龍藏은 한반도에서의 조사로 선사시대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그 중 한반도와 일본에서 확인되는 석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도래인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固有日本人’ 설이다. 鳥居龍藏의 ‘固有日本人’ 설은 죠몽토기 사용 집단은 아이누의 유적이고, 대륙에서 건너간 야요이토기 사용집단이 현재 일본인의 선조인 ‘固有日本人’ 이라는 것이다. 그의 ‘固有日本人’ 설은 1917년 일본 키나이(畿内) 지역의 석기시대 조사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鳥居龍藏은 코우유적(國府遺跡)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固有日本人’은 일본의 각지에 침입하여 아이누의 거주지를 쫓아낸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야요이시대인, 즉 ‘固有日本人’의 기원지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固有日本人’ 설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한반도 석기시대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鳥居龍藏에게 있어 한반도 석기시대의 조사는 한반도 석기시대 양상을 밝히는 것보다 일본의 죠몽토기 사용자와 야요이토기 사용자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IV. 浜田耕作과 梅原末治의 김해패총 조사 - 1920년 이후

鳥居龍藏의 조사 이후 실시된 1920년과 1922년 두 번의 발굴 조사는 매우 중요한 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번의 조사는 모두 조선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고적조사의 일환이었다. 이후 김해패총의 조사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역사 구분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은 1920년의 조사로, 이때의 조사는 하마다 코우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주도하여 10월 23일부터 6일간, 인부 연인원 78명이 동원되는 등 일제강점기 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매우 대규모의 발굴이었으며, 패총이라는 유구의 특성상 최초로 분층적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조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을까. 왜 濱田耕作과 梅原末治는 김해패총의 대규모 발굴을 계획하였을까.

한반도에서의 고적조사를 실시하기 바로 전해 濱田耕作은 國府遺蹟을 발굴조사하게 된다. 1917년 6월 실시된 國府遺蹟의 발굴은 원래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조사 결과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존재가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못하였지만, 國府遺蹟의 발굴 결과는 일본 석기시대인 논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유럽유학에서 돌아온 濱田耕作은 國府遺蹟에서 분층적 발굴을 시도하였으며, 죠몽토기와 야요이토기를 동일 민족에 의한 토기 제작상의 변화로 해석하여 鳥居龍藏의 ‘固有日本人’ 설에 반대하는 ‘原日本人’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國府遺蹟의 조사 경험, 특히 분층적 발굴조사는 이후 김해패총 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濱田耕作 역시 석기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럽 유학을 통해 분층적 조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濱田耕作은 아마

1) 실제 발굴조사에는 谷井濟一 역시 일부 참여하였다.

鳥居龍藏과의 논쟁,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관심, 분층적 발굴의 시도 등의 이유에서 김해패총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김해패총에서 석기시대의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며, 조사결과는 오히려 금석병용기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1920년도의 조사 결과는 1922년에 실시된 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1923년 보고서가 발간된다. 그 보고서에서는 석기시대에 관한 내용보다는 석기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금석병용기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김해패총 발굴에 대해 鳥居龍藏은 금석병용기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계단식 발굴 방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한다. 이후 김해 패총 발굴 조사를 둘러싼 鳥居龍藏과 浜田耕作의 논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의 금석병용기는 그대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김해패총을 필두로 한 금석병용기는 그대로 한국의 고대사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시대 구분에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V. 일제강점기 김해패총의 마지막 조사

1934년 樞本杜人の 김해패총 조사는 계획된 조사는 아니었다. 우연히 옹관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조사에서 옹관, 석관, 청동기 등이 조사되었다. 김해패총의 학문적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고적 대장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김해패총은 1934년도의 발굴을 계기로 고적으로 지정되는 등, 이 때의 발굴은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樞本杜人の 발굴 역시 정식보고서로는 발간되지 않은 채, 발굴 직후 그리고 해방 이후에 여러 편의 논문에서 단편적으로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VI. 맺음말을 대신하여 - 김해패총의 학사적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초 김해패총의 조사 목적은 한반도 석기시대 존재의 확인과 일본 석기시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발굴에서 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1910년대는 당시까지 확인된 최초의 패총 유적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인 인종·민족논쟁의 보조적 자료로서 조사되었을 뿐이다. 1920년대 들어와 다시금 분층 발굴법의 시도, 일본 석기시대인 논쟁의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김해패총이 조사되었으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에 ‘금석병용기’의 존재를 주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일제강점기 한반도 시대 구분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해패총의 문화 내용에 대한 해석은 1934년 樵本杜人の 발굴 조사를 거쳐 해방 후까지 한국고고학의 김해식토기, 김해기, 김해문화, 원삼국시대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방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해 패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고고학에서 김해패총이 차지하고 있는 학사적, 학문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920년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 보고서 작업을 위해 京都帝國大學으로 반출되어 유물의 대다수가 일본에 있다는 것이 늦어진 정리의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사 자료에 대한 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대한 지금의 학사적 검토는 단순히 과거 발굴 조사 자료에 대한 정리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고고자료를 새롭게 정리, 검토하여 새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정리의 목적일 것이다.

<김해패총 관련 주요 참고문헌>

-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金石竝用期'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제68호
- 국립김해박물관, 2014, 『김해 회현리 패총』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9집, 국립김해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13책
- 今西龍, 1907, 「朝鮮にて発見せる貝塚に就いて」 『東京人類学会雑誌』 23-259
- 榎本杜人, 1954, 「金海貝塚の再検討」 『考古学雑誌』 40-3
- 榎本杜人, 1957, 「金海貝塚の甕棺と箱式石棺 - 金海貝塚の再検討(承前)」 『考古学雑誌』 43-1
- 鳥居龍藏, 1917, 「畿内の石器時代に就いて」 『人類学雑誌』 32-9
- 鳥居龍藏, 1924, 「浜田・梅原両氏著『金海貝塚報告』を読む」 『有史以前の日本』
- 鳥居龍藏, 1953, 『ある老学徒の手記 考古学とともに六十年光』 朝日新聞社
- 朝鮮總督府, 1923,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